

약효도 녹이는 폭염... “서늘한 그늘에 통풍되도록 보관”

가정상비약 품목별 보관 요령
 실온 보관으로 기재 돼 있어도 폭염엔 의약품 변질 가능성 높아 개봉후 사용기간 엄수·재포장 NO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면서 의약품이 변질하거나 녹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유통되는 약



대부분은 상온 또는 실온에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약전에선 상온을 15~25도, 실온을 1~30도로 규정한다.

즉, 요즘과 같은 고온에서는 상온이나 실온에 보관했다가는 의약품이 변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에는 야외에 주차한 자동차 내 온도가 70도를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온의 자동차 내부에 약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름철 의약품 보관 시 주의사항’을 2일 배포·공개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소염진통제 또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혈전 생성 억제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다.

고온에 보관할 경우 분해 및 파손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피부질환 연고 및 크림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은 햇빛이나 온도, 습도에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무좀 등에 사용하는 라미실크림은 빛에 민감하므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연고는 별도 주의사항이 없다면 상온에서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잘 닫는다.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만약 약 처방받은 연고류를 별도의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썼다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인슐린 주사제
 매일 투여해야 하는 인슐린 주사제는 적정온도 유지와 짧은 사용 기한으로 인해 보관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약물이다. 인슐린 주사제는 고온에서 효능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30℃ 이상에 방치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저온에 보관해 얼게 해서도 안 된다. 여름 중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슐린을 챙겼다면 4~2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케이스에 보관하는 게 좋다.

◆협심증 치료제
 협심증 발작에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舌下錠·혀 밑에서 녹여 먹는 약)은 보관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빛, 열, 습기에 민감하므로 실온에서 밀봉, 차광 상태로 원래의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여름철 주머니에 약이 든 플라스틱병을 보관하고 다녔을 때, 5일이 지나자 분해되고 15일이 지나자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천식 치료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역시 보관 온도에 민감하다. 고온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으며, 흡입할 때 환자에 전달되는 약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알베스코흡입제의 경우 가압된 액체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루약 시럽
 가루약은 일반 정제 알약보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가루약은 특히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가루약의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로 굳어지면 바로 버려야 한다. 또 항생제, 시럽은 약마다 보관 온도가 상이하므로 설명서를 따르는 게 제일 안전하다.

◆냉장보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정에서 서늘한 곳에 약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약을 넣어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럽은 일부를 제외하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물의 층이 분리돼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항생제 등 포장지에 냉장보관이 적혀 있는 약물을 제외하고는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고온의 날씨로 인해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지퍼백에 넣어 음식이나 음식의 일시적인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사회는 “대부분의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며 “약국에서 포장에 든 약을 별도로 썼다면 이를 개봉해 다른 약병에 옮겨 담거나 다른 약과 재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셀트리온 ‘허쥬마’, 호주 식약처 판매 허가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

셀트리온은 ‘허쥬마(사진)’가 호주 식약처(TGA)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다.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호주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허쥬마는 조기유방암 및 국소진행형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 진행성 위암 치료에 쓰이며,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하고 로슈(Roche)가 판매하는 ‘허셉틴’이다.

허쥬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호주에서 연간 약 1341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허쥬마의 호주 유통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론칭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2015년 8월 호주에서 램시마의 허가를 받고 유통 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와 호주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호주 식약처로부터 두번째 제품인 혈액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허가도 획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호주의 암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소진공, 신한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협력 ‘맞손’

은행컨설팅 연계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홍보협력 ▲소상공인 성공지원 컨설팅 센터(가칭) 운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매출증대·수익개선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공



(왼쪽부터)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홍빈 이사장이 지난 1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사인을 하고 있다. /*소진공

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진공은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오프

라인 서류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초본·등본 등의 필수서류 14종과 법인 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추가 요청서류 10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모기퇴치제 ‘뚝’, 쿨링제품 매출 ‘쑥’

폭염의 경제학

위메프 “모기장 등 용품 14% 줄어”

40도 가까이 치솟는 폭염에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가 예년보다 줄면서 모기퇴치용품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쿨링 제품 매출은 경증 뛰었다.

위메프는 지난 7월 한달동안 모기장, 모기기피제 등 모기퇴치용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4% 가량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기향 40%, 방충망 35%, 살충제 35%, 모기퇴치스프레이는 지난해보다 6% 각각 감소했다. 실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모기장은 40%, 전기모기채도 37% 역신장했다. 반면 모기 물린 자리에 붙이는 모기패치는 238%, 손목이나 발목에 착용하는 모기퇴치밴드는 170% 급성장했다. 위메프 천경원 리빙실장은 “오랜 폭염

으로 모기수가 줄어들어 관련 제품의 판매가 예년에 비해 주춤한 편”이라며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이 많은 모기패치, 모기퇴치팔찌 등은 날씨의 영향과 상관없이 작년보다 2배 이상 판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되는 폭염으로 체온을 낮추거나 햇빛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옷에 뿌리는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쿨스프레이는 117%, 자동차·유모차 쿨시트는 50%, 쿨방석은 31%, 피부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수딩젤은 전년 동기 대비 20% 매출이 증가했다. 강한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선크림과 양산도 각각 50%, 40% 판매가 늘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쭙부인 모양의 쿨부인, 양손이 자유로운 샷갓모자 등 폭염을 재미있게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쿨링제품이 인기”라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쿨링제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리브영 여성창업자 위해 女멘토 총 집합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18 올리브영 Women Leaders Day’에서 여성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마친 여성 리더 3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희진 에스맨 대표(왼쪽부터 차례대로), 수 이즈미엘 네즈 대표, 최나라 올리브영 상품기획자. /*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이 여성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각 분야 여성 리더들과 함께 멘토로 나섰다.

올리브영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8 올리브영 위민 리더스 데이(Women Leaders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18 올리브영 위민 리더스 데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국내외 여성 리더들과 함께 대학생 및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행사는 올리브영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호주의 유명 제모 브랜드이자 올리브영이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네즈(Nad’s)’가 후원했다.

이 날 행사는 사전 신청한 여성 예비 창

‘위민 리더스 데이’ 성황리 개최 여성 스타트업 후원식 등 진행

업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한 여성 리더 3인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와 여성 스타트업 후원식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토크 콘서트 연사로는 여성 글로벌 리더로 ‘수 이즈미엘(Sue Ismiel)’ 호주 글로벌 제모 브랜드 ‘네즈’ 대표가 나섰다.

트렌드 리더로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최나라 올리브영 상품기획자가 상품 소심 노하우를, 라이징 리더로는 최희진 에스맨 대표가 ‘모두가 행복한 공정부역 비즈니스’ 성장스토리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여성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네즈’의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